

아동 도서 그림책 영한 번역에 나타나는 제목의 구조: 동시적 양상과 언어학적 고찰

나 연 서
(숙명여대)

1. 서론

본 연구는 영한 번역 아동 도서 그림책 제목의 구조적 특성을 동시적으로 파악하여 제목 구조의 일반성과 일관성을 추론하고, 번역시 나타나는 구조 변형 경향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인간의 언어는 규칙의 지배를 받는다. 기원전 4세기경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로 시작된 전통문법부터 구조문법, 1950년대 촘스키(Chomsky 1957)의 변형생성문법까지 인간의 언어는 끊임없이 연구 대상이었다. 언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언어 체계에 내재한 규칙을 찾아 보편적인 속성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보편문법(Universal Grammar)을 마련하여 문법 속성을 타당하게 설명하는 것이었다(Radford 2004: 7-9). 이러한 언어 문법 속성을 본고는 제목을 통해서 살펴보고, 제목이라는 특수한 언어 수행 영역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구

조 원리와 개별적인 특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목에는 해당 언어 작가, 번역가 또는 출판 관계자가 텍스트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노력이 드러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제목 구조에 표출되어 언어의 보편성과 개별성을 표출하게 된다. 본고는 ST-TT¹⁾에 나타나는 보편적 특성을 제목 구조의 원리로, 개별적 특성을 각각의 변이로 보고, 이러한 특성이 어떻게 표출되는지 찾고자 한다.

일반적인 텍스트와 달리 제목은 본문의 내용을 응집하여 보여주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언어와 다른 구조를 보이게 된다. 짧은 구조 안에 함축하기 위해 기능어가 생략된 전보식 언어가 나타나기도 하고 짧은 문장 형식이 나타나기도 한다. 제목 구조를 분석해봄으로써 제목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구조와 변형되는 구조를 파악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절차 면에서는 우선 분석 대상 도서 제시 후 제목의 기능과 중요성에 대한 그간의 연구를 고찰해본다. 그런 다음 ST와 TT 제목에 나타나는 구조 분류와 출판 시기에 따른 분석을 통해 보편성과 일관성을 띤 양상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영한 번역 아동 도서 그림책 제목에 나타나는 구조적 특징을 종합하여 기술함으로써 제목 번역시 구조 변형에 대해 고찰해본다.

1.1. 분석 도서

본 연구를 위한 분석 도서 목록은 나연서(2016)의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영한 번역 그림책 목록과 어린이도서연구회가 제시한 출판 도서 목록 중에서 영한 번역 아동 도서를 추가 분석한다. 어린이도서연구회의 목록은 비교적 최근 번역된 도서들로 연령별, 분야별로 추천 도서를 중심으로 제시하고, 나연서의 목록은 ST와 TT 총 1,600여 권으로 각종 수상작과 대중적 인지도 등을 기준으로 하였다. 어린이도서연구회의 목록은 전국의 초등학교 도서관의 권장 도서 목록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 중 2011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목록²⁾

- 1) 본고의 분석 대상이 영한 번역 아동 도서 그림책이므로 ST(Source Text)는 영어 원본을, TT(Target Text)는 한국어 번역본을 칭한다.
- 2) 어린이 도서 연구회의 목록은 1995년부터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나, 2011년 파일부터 온라인상에서 개인 열람이 가능하고, 그 이전 목록은 학교나 기관 공개인 것으로 확인된다.

을 사용하였으며, 두 목록에서 서로 중복되는 도서를 제외하면 전체 1,924권으로 ST와 TT 각 962권이 된다³⁾.

출판 시기는 세계 최대 규모의 도서 추천 사이트인 굿리즈(Goodreads)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그리고 인터넷 교보문고⁴⁾를 참고하였고, 여러 편의 개정본이 있는 경우도 최초 출판본을 적용하거나 가장 이른 출판 시기를 추적하여 적용하였다⁵⁾.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도서는 그 대상 연령의 특성상 어떤 주제를 전달하는 이야기든지 글과 그림이 공존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림만으로도 서사를 포함하여 글 없이 주제 전달이 가능하기도 하고, 또는 그림이 글의 보조적인 역할만 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림 없이 글만 보여주는 아동 도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므로 아동 도서 중에서도 초등 저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도서를 이하 아동 도서 그림책이라 칭하기로 한다.

아동 도서 그림책만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유아기부터 글을 배우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가 책을 접하게 되는 최초 시작 시기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책은 어린이가 처음 만나는 책이며, 책에서 찾아낸 즐거움의 양에 따라 평생 책을 좋아하게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될 수 있다. 이처럼 시작점 영역에서 만나는 책에 대한 기억과 경험이 쌓여 독서 태도를 형성하게 되는 어린 아동기의 도서 연구가 일종의 스캐폴딩(scaffolding)⁶⁾이 되어 상위 연

3) 분석 대상 목록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아 확인할 수 있다.

<http://blog.naver.com/aquary27/memo/220918912888>

4) www.goodreads.com

<http://www.nlcy.go.kr/>

<http://www.kyobobook.co.kr/>

5) 어린이도서연구회의 목록에는 TT 출판 시기는 명시되어 있으나 ST 출판 시기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TT에 해당하는 ST를 추적하여 출판시기를 확인했다. 절판된 도서도 있지만 제외하지는 않았다. 어린이도서연구회(2012: 77)가 밝힌 절판 이유에 의하면, 해외 출판물의 경우 보통 3~5년 단위로 판권 계약을 맺는데 계약 만료 시기가 돌아왔을 때 판매율이 낮은 책의 재계약을 저하 때문이기도 하고, 작은 출판사가 문을 닫거나 경쟁력 없는 분야의 책들을 포기하는 것도 절판의 요인이라고 한다. 도서가 절판되더라도 멀티미디어나 전자책 출판으로 넘어가는 흐름도 있을 뿐 아니라 여전히 도서관에 비치된 도서로서 만날 수 있으므로, 절판이 곧 독자가 해당 도서를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걸 의미하진 않을 것이다.

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도서 연구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2. 제목

‘책을 읽는다는 것’은 책의 이야기를 읽는 것뿐 아니라 책을 둘러싼 모든 요소를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문에 담은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변적인 요소들이 합쳐진 한 권의 책을 수용할 때 비로소 책을 읽는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의 문학비평가인 제라르 주네뜨(Gerard Genette 1987, 1991)는 책 외부, 책 사이의 일부를 형성하는 제목, 서문, 후기, 삽화 등 본문을 둘러싼 주변적인 요소들을 곁 텍스트(paratext)라고 했다. 하나의 텍스트가 이야기로 그치는 게 아니라 비로소 책으로 인식되게 하는 수단인 것이다.

많은 경험적 연구들이 아동 독자가 책의 제목을 보고 책을 선택하거나 거부하는 것을 보여준다(Nikolajeva & Scott 2006: 242). 학생들이 학교 도서관에서 스스로 책을 선택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것이 제목이었다는 신헌재, 이정순(2013)의 연구가 그 예가 될 수 있다.

제목이 단순히 텍스트를 변별, 분리하는 기호체계라면 책의 주민등록번호라 할 수 있는 국제표준도서번호(ISBN)⁸⁾만으로도 구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6) 우드, 부르너, 로스(David Wood, Jerome S. Bruner and Gail Ross 1976: 90)는 아동이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과업을 해결하고 잠재적 발달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부모, 교사, 또는 또래의 도움을 받는 과정을 스캐폴딩이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다. 비고츠키(Vygotsky 1978: 86)는 아동의 학습과 관련하여 실제적 발달 수준과 잠재적 발달 수준 사이의 거리에 대한 근접발달영역(Zone of Proximal Distance, ZPD)이라는 접근법을 설명하였는데, 이후 여러 학자에 의해 이 접근법과 관련한 연구에서 핵심적인 개념으로 스캐폴딩이 함께 사용되었다. 이 용어는 주로 아동의 언어 학습과 관련하여 교육학계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비계’, ‘단계적 지지’ 등의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7) 문화체육관광부의 2015년 국민독서실태조사에 의하면, 부모의 그림책 읽어주기 빈도가 학생들의 독서량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며 연간 독서량이 많은 학생일수록 어릴 때 부모님이 그림책을 ‘자주 읽어주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아동기 독서가 청소년기 및 성인기까지 인생 전반의 독서에 영향을 끼침을 보여주는 것이다.

8) 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ISBN)은 출판물을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관점을 보여주기도 하듯 제목을 단순한 ‘라벨’이나 ‘지시 명칭’ 정도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Levinson 1985: 33; Adams 1987: 12, 남윤지 2015: 88에서 재인용). 그러나 제목학(titrologie)⁹⁾이라는 학문 분야가 있는 것만 보더라도 제목이란 단순히 텍스트를 변별 짓는 부차적인 요소가 아니라, 분석되고 연구되는 개별학문으로 간주할 만큼 텍스트를 대표하며 이끌어가는 주요 원동력이다.

찰스 디킨스(Charles Dickens) 역시 제목을 정하는 데 고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런던의 빅토리아 앤드 엘버트 박물관에 보관된 원고 원본에는 여러 가지 제목이 찍어 있다. *Tom-All-Along s The Ruined House, The East Wind, Tom-All-Along s Factory that Got Into Chancery and Never Got Out* 등이다(최재봉 2010: 49). 디킨스의 최고 작품 중의 하나로 여겨지는 이 작품의 최종 제목은 바로 *Bleak House*-『황폐한 집』이다. 제목은 바로 수년간 공들인 작품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마지막 호흡이며 생명인 것이다. 이처럼 제목은 책의 핵심과 방향성을 내포하며 독자와 커뮤니케이션을 유도하는 연결 고리로 작품의 성패까지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텍스트를 가장 효과적으로 함축하여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구조가 제목으로 나타날 것이다.

원제목 구조와 번역될 때 나타나는 구조 변형은 언어 간의 특성이 표출되는 것이며, 해당 언어 사회에서 제목이 외부적으로 보여주는 효과와 관련해서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 언어 수행 기저의 언어 능력 측면에서 모국어 화자의 심리에 자리 잡고 있는 제목의 통시적 구조 변형을 파악해보는 것은 인간의 언어 능력이 어떠한 보편적·개별적 특성을 보이며 이것이 제목으로 나타나는지 파악해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아울러 시기별 변화추이도 살펴봄으로써 통시적 양상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추후 제목 연구나 제목 번역, 제목 짓기의 기저 지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목 번역 연구는 크게 제목의 기능, 기법, 형태, 그리고 구조적인 면을 중심으로, 문학 작품뿐만 아니라 영화나 뉴스 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됐다¹⁰⁾. 그 중 구조와 관련된 제목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따라 식별하는 13자리로 구성된 표준코드로 도서에 부여되는 고유번호이다.

9) 클로드 뒤셰(Claude Duchet 1973)는 제목에 대한 모든 연구를 아우르는 미시적 학문 분과를 구분하여 ‘제목학’이라 명명했다(남윤지 2015: 89에서 재인용).

『뉴스위크 한국판』의 번역 기사 제목에 나타나는 기능적, 형태적, 의미 및 구조적인 면을 복합적으로 다룬 강지혜(2008)는 기사의 제목이 전체 텍스트의 내용을 요약하고 기사의 중요성을 암시하며 독자의 관심을 본문으로 이끌어 독자가 기사를 해석하는 데 필요한 “틀(frame)”(Goffman 1986: 45)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원문기사 제목보다 번역기사 제목이 어떤 의미적, 구조적, 수사적 차이를 보이는지 담화 관행 중심으로 분석하여, 그 분석 결과를 언어전환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제도적 관점에서 조명했다. 제목의 구조적 측면에서 볼 때, 뉴스위크 한국판 스타일북은 서술형을 권장하고 명사형, 의문형을 지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확대 명사형이 많았다고 한다. 번역기사 제목에는 명사를 보충 설명하는 수식어구가 사용된 명사구가 많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영어로 번역된 한국영화의 제목 번역에 대해 연구한 오미형(2011)은 제목의 길이, 통사 구조, 빈출 어휘 차원에서 제목 구조를 비교 분석했다. 통사 구조 분류 범주를 단어, 구, 문장형으로 나누어 분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단어형 범주에 ‘수식어+명사’ 등의 구형까지 포함하여 단어형 범주를 다소 확장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 한국영화와 외국영화 모두 단어형 제목이 70% 내외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구나 절, 마지막이 문장형의 순서로 나타났다고 한다. 한국영화가 외국영화보다 문장형이 조금 더 많았지만 그 차이가 현격한 것은 아니어서 양적인 차이는 없었다고 한다. 이 결과는 다른 제목 구조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어구형이 많았다고 제시하는 것과 표면적으로는 다소 엇갈리는 것으로 보이지만, 단어형 범주를 수식어가 있는 명사구까지 포함한 것이므로 결론적으로 어구형이 가장 많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초등학생의 학년별 동화 선호 경향을 연구한 신헌재, 이정순(2013)은 제목을 크게 단어형, 어구형, 문장형으로 구분하고, 이런 기술 유형에 따라 학년 군별로 선호 양상의 차이점을 기술한다. 학교 도서관 다대출 도서를 대상으로 한 그들의 연구에 의하면 초등학교 저학년은 전반적으로 한 단어로 기술된 제목의

10) 제목의 기능, 기법, 형태에 대한 연구로 김순영(2009), 김순영, 이선영(2015), 최미경(2016), 오미형(2012), 임종우, 이상빈(2016) 등을 들 수 있다. 제목의 기능이나 형태에 관한 이러한 연구들은 제목 유형과 전략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실제 번역 현장에서 직·간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이 될 것이다.

도서는 선호하지 않았으며, 어구형과 문장형을 더 선호하였다. 이 연구는 실제 선호 양상을 밝혀내어 추후 교육과정에서 도서 선택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제목 구조로 어구형과 문장형이 선호된다는 경험적인 결과가 일반적인 제목 구조 빈도와 일치하고 있어서 이러한 구조 양상이 추후에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 창작 그림책 404권에 나타난 언어 형태를 시기별로 연구한 이은혜(2014)는 어구형, 문장형, 단어형이 시대에 따라 증감을 보이긴 했지만, 시대에 상관없이 어구형이 가장 많았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한겨레 말글 연구소의 최인호(2007)는 방송 프로그램 제목 1만 3,000여 건의 구조를 분석한 결과, 두 어절 이상의 명사구 형태가 가장 많았으며 문장 형식이 그 다음이고 단어형이 가장 적었다고 한다.

이처럼 신문 기사나 영화, 비번역서, 방송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목 구조를 분석하는 연구가 실행되어 왔고, 그 결과는 조금씩 상이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제목 구조에는 어구형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문장형, 단어형의 순서임을 알 수 있다.

모나 베이커(Mona Baker 2006: 129-132)는 사회학자 어빙 고프만(Erving Goffman)의 ‘프레이밍(framing)’ 개념을 사용하여 번역 행위가 ‘틀을 다시 짜는 것(reframe)’이라고 한다. 특히 제목이 이야기의 틀을 다시 짜는 역할을 하는 요소임을 강조한다. 여기에는 제목이 함축하는 의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측면도 포함될 것이다. 제목이라는 틀을 지을 때 모국어 화자가 고려하는 구조, 책의 내용과 진가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구조, 의미를 담아 함축하는 과정에서 가장 효과적이라 고려되는 특정 구조가 제목의 틀로 선택될 것이다. 이렇게 선택된 제목 구조는 결코 임의적이지 않으며 모국어 화자의 심층에 있는 모국어 화자의 사회에서 가장 선호되며 인지되는 보편적인 구조일 것이다. 물론 어떤 스타일 안내서에는 제목의 형태에 대해 지정해놓고 그에 따라 규범적인 형태의 제목 짓기를 권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강지혜(2008)의 연구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스타일 안내서에서 제시하는 것과 다른 구조의 제목이 빈번함을 볼 때, 제목 짓기에는 모국어 화자가 자각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내재된 별도의 틀 즉, 제목에 적용되는 일종의 제목 구조 원리가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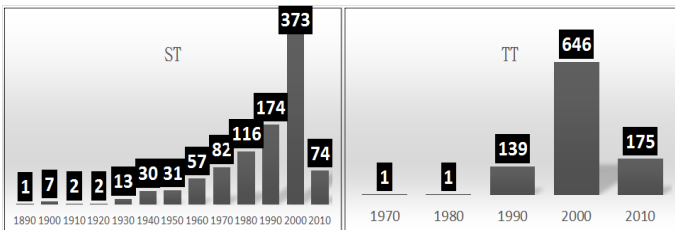
원작의 제목 짓기뿐 아니라 번역 행위가 발생할 때 번역가의 모국어 구조도 번역 제목 짓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고는 제목의 구조를 통사적으로 분석하여 기술적 타당성(descriptive adequacy)을 가진 제목의 보편적 특성을 찾고자 한다. 이야기의 틀 짓기인 제목에 나타나는 구조에 대해 전통 문법이나 직관보다 좀 더 심층적, 인지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3. 분석

3.1. ST-TT 제목 분포

분석 대상은 ST(영어 원본)와 TT(한국어 번역본) 각 962권으로, 출판 시기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1〉 ST-TT 분석 도서 출판 시기



ST 분석 대상 중 가장 초기 작품은 *The Story of Little Black Sambo*(1899) 『꼬마 감동이 삼보(2005)』이다. 1900년대 초까지 작품은 번역이 많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1940년대 작품부터 서서히 번역되기 시작해서 1990년대, 2000년대의 많은 작품이 국내 독자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2010년대는 아직 번역되지 않은 작품도 많고 2010년대 전반기까지의 일부 도서가 분석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추후 2010년대를 마감한 후 비교하여 증감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TT 분석 대상 중 가장 초기 작품은 『티코와 황금날개(1979)』 *Tico and the Golden Wings*(1964)였다. 1990년대에 번역 그림책이 본격적으로 출판되기 시작

했고, 2000년대에는 전체 TT 962권의 약 67%에 해당하는 646권이 출판되었다.

ST에서 TT로 번역되기까지 기간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가장 오래 걸린 작품은 *The Tailor of Gloucester*(1903) 『글로스터의 재봉사(2013)』로 ST 첫 출판 이후 110년이 지나 TT가 출판되었다. ST와 TT의 출판 기간 차이가 1년 미만인 작품은 242권으로 2000년대 작품이 주를 이루었다. 국내에 번역서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1990년대부터 꾸준히 ST의 오래된 과거 작품도 번역되고 있고, ST 출판과 비슷한 시기의 TT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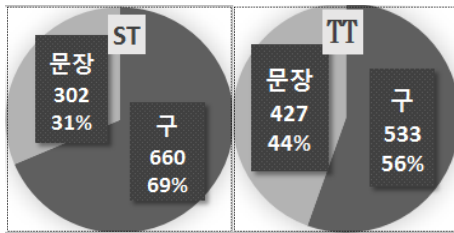
지금까지 출판 시기 및 ST와 TT의 출판 기간 차이와 관련하여 분석 도서의 전반적인 분포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출판 시기와 관련하여 제목 구조에 어떤 차이나 유사점이 있는지, 어느 정도의 비율로 나타나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세부항목으로 나눠 구조적 특징을 살펴본다.

3.2. 제목 구조

3.2.1. 제목 구조 분류

분석 대상 ST와 TT 각 962권의 제목 구조를 크게 구형과 문장형으로 나눠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ST-TT 문장형-구형 비율



제목 구조는 크게 NP(Noun Phrase, 명사구), AP(Adjective Phrase, 형용사구), AdvP(Adverbial Phrase, 부사구), PP(Pre/Post-position Phrase, 전/후치사구), CP(Complementizer Phrase, 문장)¹¹⁾의 다섯 가지 구조로 함축되었다. 그중 N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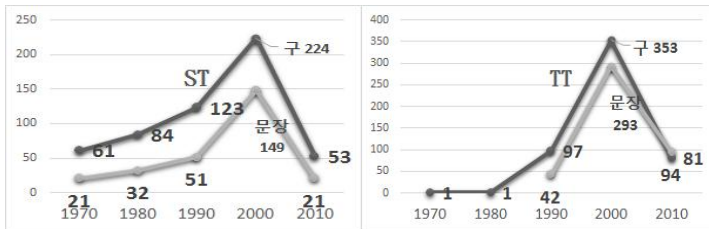
11) CP는 문장의 최대투사 범주로 보문소구라고도 불린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용어적

AP, AdvP, PP를 포괄하는 구형태 제목이 ST와 TT 각 660권(69%)과 535권(56%)으로 CP인 문장형보다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ST와 TT 모두 구형이 가장 많은 빈도로 나타났다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ST와 TT의 문장형과 구형 구조 비율을 살펴보면, ST는 구형이 문장형보다 2배가량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나 TT는 구형과 문장형 비율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 결과 $p < 0.05$ 로, ST인가 TT인가에 상관없이 구형과 문장형 출현 빈도가 같다고 볼 순 없다¹²⁾. 즉, TT 문장형 비율이 ST 문장형 비율보다 높은 것은 유의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선행 연구 결과에서는 ST와 TT에서 구형과 문장형의 출현 비율이 거의 비슷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본고의 분석에 의하면 ST는 구형이 문장형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TT는 구형과 문장형의 비율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T는 ST보다 문장형 제목 구조가 상대적으로 더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출판 시기별 구와 문장이 출현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ST-TT 출판 시기별 구-문장 비율



ST 제목의 구형과 문장형은 출판 시기와 상관없이 비교적 일정한 비율로

혼동을 줄이기 위해 CP를 문장으로 간주한다. Chomsky(1970: 184-221)에서 문장(S)과 명사구(NP)의 유사성을 포착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어휘 범주 간의 유사성을 포착함으로써 모든 어휘 범주가 구로 투사된다는 일반화를 달성하였다. 그래서 한 단어도 구가 되고, 문장도 구로 설명하게 된다. 예를 들어, 『알도』와 같은 한 단어도 구 단위인 명사구가 되고, 『내게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여동생이 있습니다』와 같은 문장도 보문소구인 구 단위로 보는 것이다.

12) 통계분석 R version 3.3.1을 사용(Pearson's Chi-squared test, p-value = 4.243e-09).

나타나고 있다. TT 제목의 문장형은 2000년대 아동 도서 그림책 번역이 활발해지면서부터 높은 빈도로 나타났으며, 2010년 전반기에는 근소한 차이지만 구형태를 넘어섰다. 구형과 문장형의 세부 구조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4〉 ST-TT 구조별 분포

구조 분류	ST	TT
NP	620 (64%)	502 (52%)
CP	302 (31%)	427 (44%)
PP	18 (2%)	19 (2%)
AdvP	15 (2%)	14 (2%)
AP	7 (1%)	0
총 합계	962 (100%)	962 (100%)

ST와 TT에 상관없이 다섯 가지 분류 구조 NP, PP, AdvP, AP, CP 중 NP 구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CP, PP, Advp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ST-CP는 ST-NP의 절반에 못 미치지만, TT에서는 TT-NP와 TT-CP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TT는 구형과 문장형 출현 비율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앞서 살펴본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ST에서 TT로 번역시 발생하는 제목 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ST에서 TT로 번역시 제목 구조 변화¹³⁾

구조	TT-NP	TT-CP	TT-PP	TT-AdvP	총 합계
ST-NP	449 (47%)	164 (17%)	5(1%)	2(0%)	620 (64%)
ST-CP	45(5%)	247 (26%)	6(1%)	4(0%)	302 (31%)
ST-PP	4(0%)	7(1%)	7(1%)	0(0%)	18(2%)
ST-AdvP	2(0%)	5(1%)	1(0%)	7(1%)	15(2%)
ST-AP	2(0%)	5(1%)	0(0%)	0(0%)	7(1%)
총 합계	502(52%)	429(45%)	19(2%)	12(1%)	962(100%)

ST가 NP이면 TT도 NP로, ST가 CP이면 TT도 CP로, ST-TT 동일한 구조

13) 비율(%)은 소수점 이하 반올림하여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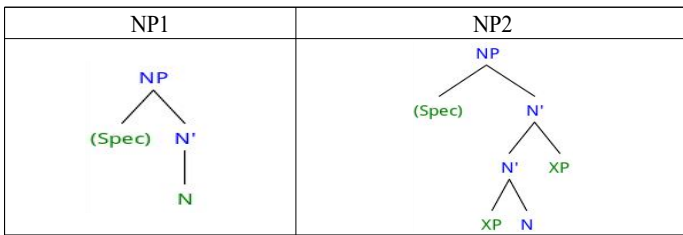
로 번역되는 비율이 높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ST가 NP일 때 TT-CP(164권)로 바뀌는 비율도 상당히 높다.

정리하면, ST와 TT에서 구형 제목이 문장형 제목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나, TT는 문장형 제목 비율이 ST 문장형 제목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번역될 때 ST의 구조들이 TT에서도 같은 구조로 나타나는 비율이 높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양상은 ST-TT간의 출판 기간 차이와 상관없이 비교적 지속적인 비율을 보였으며, 출판 시기와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지속적인 양상으로 나타났다. 제목 구조가 시대와 상관없이 ST-TT에서 각각 같은 양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 구조가 특정 시기의 임의적인 특징이 아니라, 원어인 화자의 직관에 있는 제목에 대한 원리 구조라 볼 수 있다. 제목을 결정하는 화자나 관계자가 의식하였거나 의식하지 않았거나 특정 구조가 지속적으로 일관성을 띄고 나타난다는 것은 해당 언어의 일반적, 보편적 특성으로 간주할 수 있다.

3.2.2. NP 구조 분석

구형태 중에서도 명사구인 NP 구조가 가장 많았고, 세부적으로 다양한 구조로 나타났다. 크게 NP1, NP2로 분류했으며,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표 6〉 NP 구조 분류



NP1은 보충어나 부가어¹⁴⁾같은 수식어가 없는 구조의 제목이다. *Courage*와 같은 한 단어 제목이나 *a, an, the, my* 등의 지정어(Spec)¹⁵⁾가 쓰인 *The*

14) 보충어와 부가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많은 예시로 독자의 쉬운 이해를 돕는 이상철(2006)을 참고하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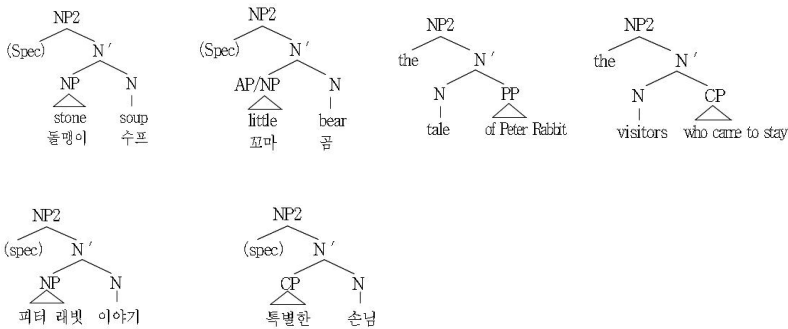
Something과 같은 제목, 두 단어 이상의 이름¹⁶⁾으로 구성된 *Heckedy Peg*과 같은 제목, 형태소 분석이 불가능한 굳어진 표현인 *Hickory Dickory Dock* 같은 제목이 ST-NP1 구조에 포함된다.

TT도 다른 수식하는 성분 없이 『알도』처럼 한 단어 명사가 쓰인 구조나, 『갈릴레오 갈릴레이』처럼 두 단어 이상의 이름으로 구성된 제목, 『우리 엄마』처럼 관형사 “우리, 새, 한” 등의 지정어를 포함한 구조이다.

NP2는 NP1의 구조에 보충어나 부가어 XP가 결합하여 확대된 구조이다. 이는 핵어 명사를 전후에서 수식하는 요소가 있는 제목 구조이며, XP는 변항으로 NP, AP, PP, AdvP, CP가 모두 나타날 수 있다. *Stone Soup*, *Little Bear*, *The tale of Peter Rabbit*, *The Visitors Who Came to Stay*와 같은 ST 제목이나 『돌맹이 수프』, 『꼬마 곰』, 『피터 래빗 이야기』, 『특별한 손님』¹⁷⁾ 과 같은 TT 제목이 NP2 구조에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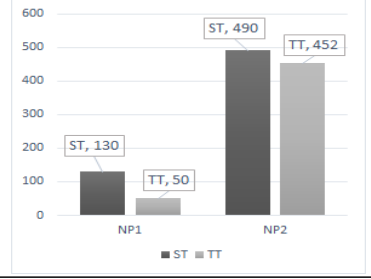
등위 구조와 소유격이 나타난 제목의 경우는 NP2 구조에 포함시킨다. 등위 구조는 ‘NP and NP’, ‘NP 와/과 NP’, 소유격은 ‘NP’s NP’ ‘NP of NP’, ‘NP의 NP’ 형태이므로 확장된 구조로 간주한다.

- 15) 지정어 자리에 오는 것은 주로 영어에서는 관사, 소유격 형용사(my, your 등), 지시 형용사(this, that 등)가 있고, 한국어에는 주로 지시 관형사(이, 그, 저 등), 성상 관형사(새, 흰 등), 수 관형사(한, 두, 세 등)가 있다.
 16) 이름을 구성하는 요소는 서로 수식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하나의 핵어로 간주한다.
 17) 각 제목을 수형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7〉 NP 구조 유형별 비율

	ST	TT
NP1	130(21%)	50(10%)
NP2	490(79%)	452(90%)
총 합계	620(100%)	502(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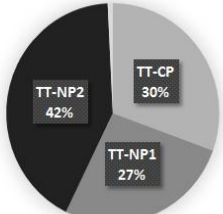
ST-TT 제목 모두 보충어가 수식하는 NP2 구조가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NP2는 ST와 TT가 빈도상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NP1의 경우는 ST가 TT보다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 $p값=2.862e-06(p<0.05)$ 로, ST-NP1이 TT-NP1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ST의 각 NP 구조가 번역된 TT 제목 구조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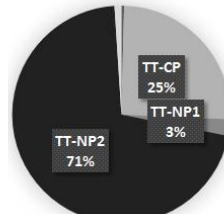
〈표 8〉 ST-NP 번역시 구조 변화

	ST-NP1	ST-NP2
TT-NP1	35 (27%)	12 (3%)
TT-NP2	55 (42%)	347 (71%)
TT-CP	40 (30%)	124 (25%)
TT-PP	1 (1%)	5 (1%)
TT-AdvP	0 (0%)	2 (0%)
총 합계	131 (100%)	490 (100%)

ST-NP1



ST-NP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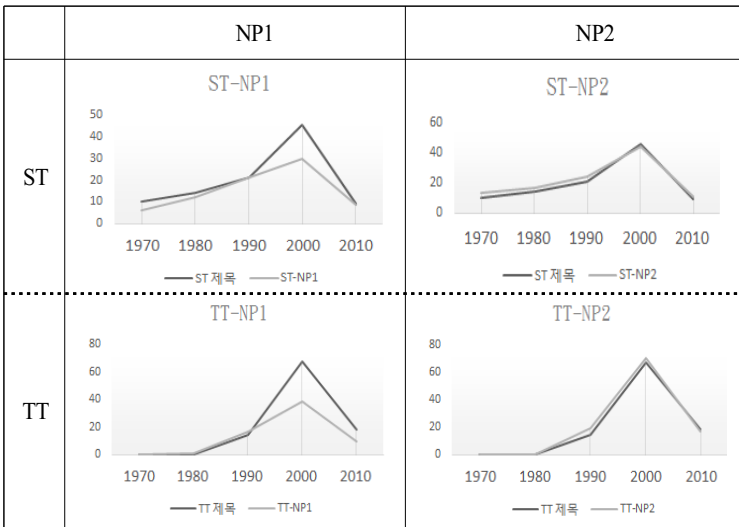


<표 8>을 통해 ST-NP1, NP2 둘다 전반적으로 TT-NP2로 번역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ST-NP1은 TT-NP1으로 번역되는 것보다 TT-NP2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으며, 문장형 TT-CP 구조로 번역되는 빈도도 높게 나타났다.

ST-NP2는 같은 구조 형태인 TT-NP2로 가장 많이 번역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TT-CP로 많이 번역되었다. 그러나 단어형 구조인 TT-NP1으로 번역되는 빈도는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TT 제목은 단어형태인 NP1이나 AdvP, PP보다, 수식어가 추가되어 확장된 구조인 NP2나 CP가 월등히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양상은 출판 시기에 상관없이 꾸준히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NP 세부 구조와 출판 시기별 출현 비율¹⁸⁾을 살펴본다.

<표 9> 출판 시기별 NP 세부 구조 출현 비율



전반적으로 ST나 TT 모두 NP1은 1990년대까지는 전체 제목 비율과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으나, 점차 줄어들기 시작해서 2000년대에는 확연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NP2 구조는 출판 시기별 비율과 거의 비슷한 비

18) 비록 ST는 1930년대부터 NP1 구조가 나타났지만, 시기의 동등 비교를 위해 ST를 TT처럼 1970년대부터 나타낸다.

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ST와 TT 모두에서 NP2 구조가 일관성을 띤 일반적인 제목 구조라고 볼 수 있다.

정리하면, ST와 TT에서 NP 구조의 제목이 가장 많았으며, 그중에서도 NP2 구조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ST와 TT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와 같은 구조를 ST와 TT에 나타나는 제목 구조 원리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상대적으로 ST-NP1이 TT-NP1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ST와 TT의 제목에 나타나는 개별적 특성인 변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7>에서 봤듯이 TT-NP1이 적게 나타나는 것을 TT는 번역시 제목에 텍스트 내용을 더 많이 보여주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동 문학이므로 가화성(speakability)¹⁹⁾을 살리는 제목을 선호하는 경향으로도 볼 수 있다. Art 『아트』, Courage 『용기』, Dawn 『새벽』처럼 NP1에서 NP1으로 번역되는 것보다는 Bums 『재미있는 엉덩이』, Cars 『부릉부릉 멋진 자동차』처럼 번역되는 것이 수식어를 추가하여 흥미를 유발하고 리드미컬하게 읽히지기 때문이다. 반면, ST-NP2가 번역시 TT-NP1으로 구조가 축소되는 경우도 있었다.

<표 10> TT-NP1으로 번역된 ST 구조

	ST-NP1	ST-NP2	ST-CP	ST-PP	총 합계
TT-NP1	37 (69%)	14 (25%)	2 (4%)	1 (2%)	54 (100%)

<표 10>에서 보면, ST-NP1은 같은 구조인 TT-NP1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ST의 구조가 TT에서도 같은 구조로 번역되었다는 관찰과 같은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ST-NP2가 TT-NP1으로 구조가 축소된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 *The Shopping Basket*이 『장바구니』로, *The Paper Cane*이 『종이학』으로 바뀌는 것처럼 ST는 수식하는 형태이지만 TT에서는 복합어 형태의 한 단어로 번역되는 경우, (2) *The Daddy Book* 『우리 아빠』처럼 구조 분류상 지정어 자리에 위치하는 “우리, 세”와 같은 관형사를 포함하여 형태상 한 단어가 아

19) 가화성(Speakability)이란 스넬-혼비(Snell-Hornby)가 번역학에서 처음 사용한 것으로, ‘말로 하기 좋은 상태나 정도’를 나타낸다(신지선 2005; 나연서 2016: 6에서 재인용).

하지만 구조상 TT-NP1으로 분류되는 제목도 포함하고 있다. (3) *Edwardo the Horriblest Boy in the Whole Wide World* 『에드워드도』, *Circus Opposites* 『서커스』처럼 ST-NP2의 핵어 명사만 사용하여 번역된 경우도 있고, (4) *The Leaf Men and the Brave Good Bugs* 『리프맨』, *Big Sister and Little Sister* 『우리 언니』처럼 등위 구조로 연결된 명사구를 제외한 번역도 있다.

그러나 단지 구조가 단어형인가 확장형인가만으로 번역 제목의 우수성을 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한 단어 형태인 *Oink* 『꿀!』, *Snore* 『드르렁』과 같은 경우는 의성어·의태어를 사용하여 충분히 가화성을 높이는 효과를 보이는 좋은 번역²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제목 구조만으로 번역의 질을 평가할 순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저자가 제목을 통해 암시하거나 보여주려 했던 의도를 번역시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3.2.3. CP 구조 분석

문장형 구조는 보문소가 나타나는 CP를 최대 범주로 볼 수 있다. ST-CP 구조가 TT 제목의 어떤 구조로 번역되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1〉 ST-TT 번역시 CP 구조 변화

	TT-CP	TT-NP2	TT-PP	TT-AdvP	TT-NP1	총 합계
ST-CP	247 (82%)	43 (14%)	6 (2%)	4 (1%)	2 (1%)	302 (100%)

ST-CP는 같은 구조인 TT-CP로 가장 많이 번역되었고, 그 다음으로 많이 번역된 것은 TT-NP2 구조였다. ST에서 TT로 제목 번역시 같은 구조로 번역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는 것과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TT-NP2가 그 다음으로 많이 나타났다는 것은 ST와 TT의 NP 구조 제목 중에서도 NP2 구조가 가장 많았다는 결과와도 상응한다. 특히 ST-CP가 TT-NP1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TT-PP, AdvP로 번역되는 경우보다 더 적은 빈도로 나타난다는 것은 TT에

20) 아동 문학의 가화성과 관련한 논문, 신지선(2005), 성승은(2014), 나연서(2016) 등을 참고하길 바란다.

서는 TT-NP1이 비교적 선호되지 않는 구조임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인 텍스트의 문장과 달리 제목은 완성되지 않은 형태도 빈번했다. 구조를 크게 분류하면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등의 문장 문법 성분을 모두 갖춘 완전문 CP, 문장 문법 성분 중 일부가 생략된 소형문 CP, 주절이 나타나지 않은 내포절 CP²¹⁾로 볼 수 있다.

〈표 12〉 CP 구조 분류

CP 구조 ²²⁾	ST-TT 제목
완전문 CP	<i>Are You My Mother?</i> 『우리 엄마 맞아?』 <i>How Do Dinosaurs Eat Their Food?</i> 『아기 공룡은 밥도 잘 먹는대요』
소형문 CP	<i>Stopping by Woods on a Snowy Evening, Hi Harry!</i> , 『안녕, 해리!』 『1은 하나』, 『요셉의 작고 낡은 오버코트가』 등 ²³⁾
내포절 CP	<i>How I Became a Pirate</i> 『내가 어떻게 해적이 되었냐면』 <i>If You Give a Dog a Donut</i> 『만일 강아지에게 도넛을 준다면』 등

완전문 CP와 내포절 CP, 그리고 소형문 CP의 각 비율은 다음과 같다.

- 21) 문장은 완전문(full sentence)과 소형문(minor sentence)로 구분할 수 있다. 완전문은 “필요한 성분이 문법 원리에 따라 완전하게 구성된 문장”이며, 소형문은 “실제 상황에서의 필요에 따라 완전문의 일부를 생략한” 문장이다(구본관의 2015: 209-210). 그러나 이와 같은 분류에 의하면 내포절은 완전문으로 볼 수도 있고 소형문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구조적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내포절을 따로 분류한다.
- 22) 소형문 CP 구조는 그 분류에 있어서 경계가 모호한 점이 있다. ‘Hi, Hello, 안녕’ 등의 감탄사는 독립적인 품사로, 통사 구조의 기능 범주인 굴절소에 감탄 양상이 실현되거나, 독립적인 기능 범주가 CP에 추가되는 것으로 분석하여 소형문 CP에 포함하였다. 그러나 엄격한 기준으로 볼 때, 문법 성분 중 일부가 생략된 문장형인 소형문 CP 범주 조건에 맞지 않다. 또한 영어의 분사 구문 역시 소형문 CP 범주에 딱 들어맞는 조건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제목 구조를 NP나 AdvP 등의 구형태 범주로 포함하는 것은 더욱 어긋난 구분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소형문 CP는 문장형태이지만 완전히 갖춘 문장형태는 아니면서 구형태도 아닌 구조의 제목 범주로 간주한다.
- 23) *Stopping by Woods on a Snowy Evening*의 TT는 『눈 내리는 저녁 숲가에 멈춰 서서』로 내포절 CP 구조이고, 『요셉의 작고 낡은 오버코트가』의 ST는 *Joseph Had a Little Overcoat*로 완전문 CP 구조이다.

<표 13> CP 세부 구조 유형별 빈도

	ST	TT
완전문 CP	246 (81%)	347 (81%)
소형문 CP	30 (10%)	56 (13%)
내포절 CP	26 (9%)	26 (6%)
총 합계	302 (100%)	429 (100%)

ST-TT 둘다 완전문 CP가 월등히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내포절 CP와 소형문 CP는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카이제곱 검정 $p값=0.2131(p>0.05)$ 에 의하면 ST-TT에 따라 세부 구조별 빈도에 차이가 없으며, ST인가 TT인가에 상관없이 완전문 CP 구조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는 것은 유의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ST-CP 세부 구조의 TT 번역 구조는 다음과 같다.

<표 14> ST-CP 세부 구조가 번역된 TT 세부 구조

	ST-완전문 CP	ST-소형문 CP	ST-내포절 CP	총 합계
TT-완전문 CP	190 (64%)	13 (4%)	4 (1%)	207 (69%)
TT-NP2	28 (9%)	2 (1%)	12 (4%)	42 (14%)
TT-소형문 CP	17 (6%)	6 (2%)	3 (1%)	26 (9%)
TT-내포절 CP	4 (1%)	4 (1%)	6 (2%)	14 (4%)
TT-AdvP	3 (1%)	2 (1%)	0	5 (2%)
TT-NP1	1 (1%)	1 (1%)	0	2 (2%)
총 합계	243 (82%)	28 (10%)	25 (8%)	296 (100%)

ST의 구조가 TT에서도 같은 구조로 번역되는 비율이 높다는 구조 원리와 마찬가지로, ST-완전문 CP는 같은 구조인 TT-완전문 CP로 가장 많이 번역되었다. 그러나 ST-소형문 CP와 ST-내포절 CP는 제목 번역 구조의 원리와 달리 같은 구조로 번역되는 것보다 TT-완전문 CP와 TT-NP2로 번역되는 빈도가 더 높았다. 이러한 변이는 본고에서 설정한 소형문 범주가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할 수도 있다. ST-소형문에 포함된 *Waiting for Wings*와 같은 분사 형태는 접속사가 생략된 내포절 CP로 볼 수도 있고, ST-NP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완성된

문장을 통한 화맥이 제목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소형문 CP와 내포절 CP에 대한 분석은 다소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ST-소형문 CP도 TT-완전문 CP로 가장 많이 번역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같은 구조인 ST-소형문 CP로 번역되었다. TT는 문장형이 높은 비율로 나타나며 문장형 중에서도 TT-완전문 CP 비율이 높았다는 결과와도 같은 맥락이다.

ST-내포절 CP는 TT-NP2로 가장 많이 번역되었고, 그 다음으로 같은 구조인 TT-내포절 CP 순서로 나타났다. TT-NP2가 TT 제목 구조 중 가장 많이 나타나는 구조이며, 그 다음으로 CP 구조가 많았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완전문 CP는 문장 구성 문법 요소를 갖추고 있으므로 통상 서법이 드러나게 된다. 크게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으로 나뉘어서 각각 ST에서 TT로 번역될 때 어떤 문장 유형으로 변형되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5〉 ST-완전문 CP의 TT-완전문 CP로 번역시 문장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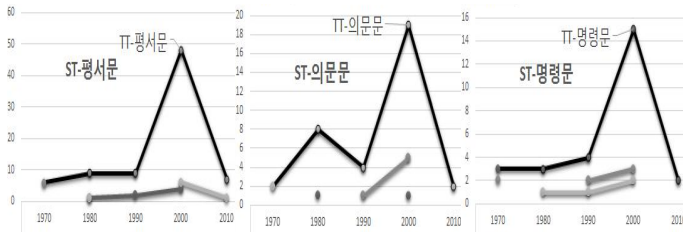
ST (190, 100%)	TT (190, 100%)	ST-TT 제목
ST-평서문 (102, 29%)	TT-평서문 (86, 25%)	<i>You're All My Favorites</i> 『네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TT-의문문 (8, 2%)	<i>This Is the House that Jack Built</i> 『책이 지은 집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TT-명령문 (8, 2%)	<i>You Forgot Your Skirt, Amelia Bloomer</i> 『치마를 입어야지, 아멜리아 블루머!』
ST-의문문 (47, 14%)	TT-평서문 (6, 2%)	<i>Snip Snap! What's That?</i> 『하늘만큼 땅만큼 무서웠어요』
	TT-의문문 (38, 11%)	<i>Why Did the Chicken Cross the Road?</i> 『닭은 왜 길을 건너갔을까』
	TT-명령문 (3, 1%)	<i>Where's Wally</i> 『윌리를 찾아라』
ST-명령문 (41, 12%)	TT-평서문 (7, 2%)	<i>Don't Get Lost</i> 『엄마 놀다 올게요』
	TT-의문문 (4, 1%)	<i>Look What I've I Got!</i> 『너도 갖고 싶니?』
	TT-명령문 (30, 9%)	<i>Sleep Tight, Little Bear!</i> 『꼭 자렴, 작은 곰아』

명령문의 경우는 강한 어조의 명령이 아니라, 간곡한 청유나 부드러운 명령

형태가 대부분이었으므로, 청유문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명령문으로 포함했다. 감탄문의 경우는 감탄사를 사용한 감탄문뿐만 아니라, 맥락에서 파악되는 감탄의 표현이 더 빈번하므로 감탄문을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평서문에 포함하였다²⁴⁾.

ST-완전문 CP가 TT-완전문 CP로 번역될 때도 대체적으로 ST의 원래 문장 유형을 TT에서도 유지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ST에서 TT로 번역시 같은 제목 구조로 유지되는 비율이 높았던 것과 같은 현상으로, 이러한 특징은 문장형 제목 구조에도 적용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형 양상은 출판 시기에 따른 차이를 크게 보이지 않고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표 16> ST-문장 유형의 출판 시기별 TT-문장 유형



<표 16>을 보면, 출판 시기에 따라 빈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ST-문장이 같은 유형의 TT-문장으로 번역되는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T가 평서문이면 TT도 평서문으로, ST가 의문문이면 TT도 의문문으로, ST가 명령문이면 TT도 명령문으로 번역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금까지 추론한 제목 번역 구조의 원리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즉, TT로 번역될 때 ST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출판 시기에 따른 변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일관성 있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3.2.4. 기타 구조

이 절에서는 NP 구조 중에서도 등위 구조와 소유격 형태로 나타나는 제목과 부사구 AdvP, 전치사/후치사구 PP 등의 구조를 띤 제목을 살펴본다.

24) 감탄문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노대규(1997), 이미지(2014)를 참고하기 바람.

〈표 17〉 등위 구조

	NP 등위	AP 등위	AdvP 등위	총 합계
ST	82(96%)	3(3.5%)	1(0.5%)	86(100%)
TT	53(100%)	0	0	53(100%)

<표 17>에서 보듯이, NP-등위 구조는 ST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 AP와 AdvP 등위 구조는 TT에선 나타나지 않았으며, ST에서도 소량 나타났다²⁵⁾.

〈표 18〉 ST 등위 구조의 TT 변형

	TT- 등위 구조	TT-CP	TT- NP2	TT- '-의'	TT- NP1	총 합계
ST-등위 구조	41 (48%)	19 (22%)	16 (19%)	8 (9%)	2 (2%)	86 (100%)

<표 18>을 보면, ST-등위 구조일 때 TT-등위 구조로 번역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The Spider and The Fly* 『거미와 파리』, *The Rich Man and the Shoemaker* 『부자와 구두장이』처럼 등위 접속되는 NP의 의미적, 형태적 변화가 크지 않다는 특징을 보였다.

ST-등위 구조에서 TT-CP로 변형된 제목으로는 *Olivia and The Fairy Princesses* 『올리비아는 공주가 싫어』, *Rosie and Tortoise* 『로지에게 동생이 생겼어요』와 같은 TT-완전문 CP로 주로 나타났다.

ST-등위 구조가 TT-NP2로 변형된 경우는 *The Pilot and the Little Prince* 『하늘을 나는 어린왕자』, *Song and Dance Man* 『멋쟁이 우리 할아버지』처럼 ST의 등위 구조를 풀어서 서술한 TT-NP2로 나타나기도 했으며, *Grandma and Me* 『알쏭달쏭 선물상자』, *Lost and Found* 『다시 만난 내 친구』처럼 ST 제목의 어휘와 다른 의미로 변형되기도 했다.

ST-등위 구조가 TT-관형격 조사 '-의'를 사용한 구조로 변경된 경우는, *The Angel and The Soldier Boy* 『천사와 꼬마병정의 대모험』, *Snippy and Snappy*

25) ST-AP 등위 구조는 *Big and Little*, *Big and Small*, *Lost and Found*가 있었으며, ST-AdvP 등위 구조는 *Up and Up*이 있었다. *Big and Little*은 『크고 작고』, *Big and Small*은 『빅과 리틀』, *Lost and Found*는 『다시 만난 내 친구』로 번역되었으며, *Up and Up*은 『높이 더 높이』로 번역되었다. 『크고 작고』와 『높이 더 높이』는 TT- 소형문 CP로 분류했다.

『스니피와 스내피의 모험』처럼 ST-등위 접속 의미를 살리면서도 관형격 조사를 결합하여 확장된 구조가 주로 나타났으며, *Olivia and the Missing Toy* 『올리비아의 잃어버린 인형』처럼 등위 구조를 풀어서 소유 의미를 부각하기도 했다.

다음으로 소유격 형태의 제목 구조 변형을 살펴보자.

〈표 19〉 ST 소유격 구조의 TT 변형

	TT-·의'	TT-NP2	TT-등위 구조	총 합계
ST - of / 's	41(65%)	17(27%)	5(8%)	63(100%)

ST-소유격 구조는 다른 구조 변형과 마찬가지로 TT-소유격 구조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The Rabbit's Wedding* 『토끼의 결혼식』처럼 ST의 구조와 의미를 유지한 번역이 주로 나타났으며, *The Adventures of the Dish and the Spoon* 『두근두근 아슬아슬 디시와 스푼의 모험 이야기』처럼 수식어를 사용하여 확장된 구조로 나타나기도 했다.

ST-소유격 구조가 TT-NP2로 변형된 경우는, *The Tale of Peter Rabbit* 『피터 래빗 이야기』처럼 ‘-의’가 생략된 형태이거나, *The Story of Ferdinand* 『꽃을 좋아하는 소 페르디난드』처럼 텍스트 내용을 수식어로 함축하여 제목으로 더 많이 보여주는 확장 구조였다.

ST-소유격 구조에서 TT-등위 구조로 변형된 경우에는 *Zeralda s Ogre* 『제랄다와 거인』, *Elsie s Bird* 『엘시와 카나리아』 등이 있었으며, ST에서는 소유 관계이지만 TT에서는 등위 관계로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ST-등위 구조가 TT-소유 의미로 변경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등위와 소유 관계가 구조적, 의미적으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TT에서는 이에 대한 차이를 구분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ST의 부사구, 전·후치사구, 형용사구가 번역된 TT 구조는 다음과 같다.

〈표 20〉 ST-AdvP, PP, AP 구조의 TT 변형

	TT-CP	TT-PP	TT-AdvP	TT-NP2	TT-NP1	총 합계
ST-PP	7	7	0	3	1	18
ST-AdvP	5	1	7	2	0	15
ST-AP	5	0	0	2	0	7
총 합계	17	8	7	7	1	40

ST-PP는 TT-PP나 TT-CP로 주로 변형되었다. *Under the Bed* 『침대 밑에』처럼 TT에서 후치사를 사용하거나, *In My Heart* 『엄마 가슴 속엔 언제나 네가 있단다』처럼 ST-PP의 전후 맥락을 문장으로 보여주는 TT-CP 구조로도 나타났다. ST가 PP이므로 TT에서도 PP로 주로 나타난 것은 같은 구조로 번역되는 비율이 높다는 원리가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TT는 문장형 CP가 ST보다 더 많이 나타났다는 결론과 같은 맥락에서 TT-CP 구조로의 변형이 비교적 많음을 알 수 있다.

ST-AdvP도 TT-AdvP로 주로 번역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TT-CP 구조로 확장되어 나타나는 빈도가 높았다. *Chicka Chicka Boom Boom* 『치카치카 뽐뽐』, *Tickle Tickle* 『아빠와 간질간질』처럼 부사구는 의성어·의태어라는 특수 어휘가 포함되어 특히 아동 문학에서 선호되는 경향이 강하다.

ST-AP는 주로 TT-CP 구조로 나타났다. 이는 영어와 한국어에 나타나는 형용사의 문법적 차이 때문으로 보인다²⁶⁾. *Tall* 『난 크다』, *Delicious*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가 그 예가 된다.

정리하면, 등위 구조도 NP-등위 구조가 가장 많다는 것은 NP가 제목 구조 중에 가장 많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며, ST와 TT의 제목에 나타나는 구조 원리가 등위 구조나 소유격 구조 및 PP, AdvP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켜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ST-AP의 경우는 언어 간의 문법 차이로 인해 주로 TT-CP 구조로 변형되어 나타났다.

26) 한국어의 특징 중의 하나로 형용사의 문법적 역할을 들 수 있다. 영어의 형용사는 형태적으로도 동사와 구분되고 통사적으로도 명사를 전치 또는 후치에서 수식하거나 동사와 함께 쓰여 서술하는 구조이지만, 한국어의 형용사는 동사와 마찬가지로 서술어의 기능을 한다. 동사는 의미상으로 ‘사람이나 자연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형용사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나 ‘사람의 성품, 날씨의 상태’(남기심, 고영근 2002: 62) 등을 표현한다. 학교 문법에서는 형용사를 9품사(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의 하나로 분류하지만, 통사적 기능이 동사와 유사하므로 형용사를 ‘상태 동사’로 부르기도 한다. 그러므로 영어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형용사의 전치 수식은 한국어에서는 관형격 조사나 관형사형 어미 등이 사용되어 관형어로서 명사를 수식하거나 설명하는 위치에 나타난다.

4. 분석 결과

지금까지 살펴본 ST와 TT 제목 구조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제시한다.

첫째, ST와 TT에 상관없이 구형태 제목 구조가 문장형태 제목 구조보다 많이 나타났다. ST-구형은 ST-문장형보다 2배 이상 높은 비율로 나타나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TT-구형과 TT-문장형은 출현 빈도 차이가 크지 않았다. TT가 ST보다 상대적으로 문장형 제목이 더 많다는 것은 TT 제목에 나타나는 개별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ST와 TT의 구형태 제목 중에서도 명사구 NP가 가장 많았다는 공통적인 특징을 보였다.

셋째, ST와 TT의 NP 제목 중에서도 수식어가 보충되어 확장된 명사구 NP2가 단어형인 NP1보다 더 많이 나타났다. ST와 TT가 모두 구형태 중에서도 명사구가 가장 많았고, 명사구 중에서도 수식어가 있는 확장된 명사구를 선호한다는 것은 이 구조들이 제목 구조의 공통적인 원리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ST-NP1이 TT-NP1보다 2배 이상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ST는 TT보다는 NP1 구조가 빈번하게 나타난다는 변이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ST와 TT의 CP 구조 제목 중 문장 문법 요소를 갖춘 완전문 CP가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완전문 CP 중에서도 평서문이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특징이 ST-TT 제목 간의 큰 차이 없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CP 구조는 ST-TT 사이에 특징적인 개별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섯째, ST-NP이면 TT-NP로, ST-CP이면 TT-CP로, 같은 구조로 번역되는 비율이 높다는 보편성을 보였다. 등위 구조, 소유격 구조 및 PP, AdvP도 같은 구조로 번역되는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ST-NP1이 TT-NP1으로 번역되는 빈도는 현저히 낮았으며 오히려 TT-NP2로 번역되는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은 TT의 개별적인 특징 즉, 변이로 볼 수 있다.

정리하면, 보편성을 띤 제목 구조 원리에는 (1) ST-TT 모두 구형태의 제목이 문장형태보다 더 많다는 것, (2) 구형태 중에서는 명사구가 많으며, (3) 명사구 중에서도 수식어가 확장된 명사구 형태의 제목이 많다는 것, (4) 문장형에는

문장 문법 요소를 갖춘 완전문이 가장 많다는 것, (5) ST 제목 구조가 번역될 때 TT에서도 같은 구조로 유지되는 빈도가 높다는 것을 포함한다. 번역시 나타나는 개별적 특성인 구조적 변이로는 (i) TT는 ST보다 상대적으로 문장형 구조가, (ii) ST는 TT보다 NP1 구조가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는 것, (iii) ST-NP1이 같은 구조인 TT-NP1이 아니라 TT-NP2로 더 많이 번역되었다는 것이다.

〈표 21〉 분석 결과

	<p>(1) Phrasal > Sentential</p> <p>ST-TT 제목에서 모두 구형태가 문장형태보다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p>	<p>(i) TT-CP > ST-CP</p> <p>ST-구형은 ST-문장형보다 2배 이상 높은 빈도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TT-구형과 TT-문장형은 출현 빈도 차이가 크지 않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p>
	<p>(2) NP > PP, Advp, AP</p> <p>ST-TT 구형태 제목 중에서도 명사구 NP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p>	<p>(ii) ST-NP1 > TT-NP1</p> <p>NP1은 ST가 TT보다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p>
	<p>(3) NP2 > NP1</p> <p>ST-TT 명사구NP 제목 중에서도 수식어가 보충되어 확장된 명사구 NP2가 단일어 형태인 NP1보다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p>	
	<p>(4) 완전문CP > 소형문,내포절CP</p> <p>ST-TT의 CP 구조 제목 중 문장 문법 요소를 갖춘 완전문 CP가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p>	
	<p>(5) ST-구조 → TT-구조</p> <p>ST-NP이면 TT-NP로, ST-CP이면 TT-CP로, ST-PP는 TT-PP로, 같은 구조로 번역되는 비율이 높다.</p>	<p>(iii) ST-NP1 → TT-NP2</p> <p>ST-NP1이 TT-NP1으로 번역되는 빈도는 현저히 낮았으며 오히려 TT-NP2로 번역되는 비율이 더 높다.</p>

앞서 보았던 제목 구조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도 전반적으로 제목 구조에는 어구형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문장형, 단어형의 순서로 나타났다고 제시했다. 본고의 분석에서도 구형이 가장 많았다는 (1)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제목 구조에 대해 빈도별 순서 제시에 그쳤기에 본고는 구조적 특징을 좀 더 자세히 기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ST-TT 제목 구조의 보편적, 개별적 특징을 찾고자 하였고, 그 결과를 보편적 특성 다섯 가지와 개별적 특성 세 가지를 제시하는 바이다.

변이로 제시한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할 것이다. 언어적 특징이 그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언어 구조는 원작의 제목 짓기 뿐 아니라 번역 제목 짓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제목에 나타나는 구조적 특성을 바탕으로 몇 가지 요인을 다음과 같이 추론해 볼 수 있다.

(i) ST보다 TT에 문장형이 많은 이유 중 하나로 형용사 및 수식하는 요소의 성질을 들 수 있다. 영어의 형용사가 주로 수식하는 자리에 나오는 반면, 한국어의 형용사는 서술하는 기능을 갖기 때문에 ST에서 명사를 수식했던 형용사가 TT에서는 서술식 문장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영어의 수식 성분들은 핵어의 앞뒤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TT에서는 이를 풀어서 서술식으로 나타내는 형태가 빈번한 것으로 보인다.

(ii) 동·서양의 사고방식 차이에 따른 언어 사용²⁷⁾도 고려할 수 있다. 동양은 동사 중심적이며, 서양은 명사 중심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을 볼 때, 이러한 언어 사용 특성은 구조에도 반영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ST에는 단어형이, TT에는 문장형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이유로 고려할 수 있다.

(iii) ST-NP1은 주로 텍스트의 등장 인물이나 중심 소재의 이름이었다. 영어는 문법적 특징으로 관사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목이 단어형으로 나타나도 어느 정도의 리듬감을 성취하는 효과를 보이지만 한국어는 영어의 관

27) 동양과 서양의 사고방식에 따른 언어 사용과 관련된 연구로 동양 엄마와 서양 엄마의 아동에 대한 언어 사용을 통해 살펴본 페르날드, 모리카와(Fernald & Morikawa 1993)의 연구가 있고, 원숭이, 바나나, 팬더/ 갈매기, 다람쥐, 나무처럼 세 단어를 제시하고 그중 둘을 묶는 실험을 통해 동서양의 문화 언어, 인지간의 차이를 살펴본 지, 장, 니스벳(Ji, Zhang, & Nisbett 2002, 2004)의 연구도 있다.

사 같은 문법적 요소가 없기 때문에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단어일지라도 리듬감이 부족할 수 있다. 예를 들면, *The Bear* 『곰』은 같은 단어형 구조이지만 음절의 차이로 리듬감이 달라지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차이가 TT-NP1보다 ST-NP1이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한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iv) 영어와 한국어의 문법성이나 제목의 리듬감도 구조적 변이에 영향을 주겠지만, TT 제목이 텍스트의 내용을 더 명시적으로 나타내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도 한 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 동양인은 맥락에 더 의존하며 배경을 포함한 전체를 보는 경향이 있다는 구체스 외(Gutchess et al. 2006)²⁸⁾의 뇌 기능과 문화 차이에 관한 연구와 같은 맥락일 것이다. 이러한 경향이, ST-TT 번역시 주로 같은 구조로 나타난다는 (5)의 원리와 다르게, ST-NP1은 TT-NP2로 변형되는 경우가 많다는 변이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전체를 보는 경향이 있다는 동양인의 사고방식이 제목을 통해 텍스트 전체를 보여주고자 하는 언어 방식으로 표출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Neville* 『친구를 사귀는 아주 특별한 방법』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ST는 등장 인물의 이름만 제시하지만 TT는 전반적인 책의 내용을 제시하면서 그 구조가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v) 초등 저학년이 어구형과 문장형 제목을 선호한다는 신헌재, 이정순 (2013)의 연구처럼 독자의 선호도도 제목 구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하나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에 대해서는 다양한 경험적, 사회적, 심리적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영한 번역 아동 도서 그림책 제목의 구조적 특성을 통시적으로 파악하여 제목이라는 특수한 언어 수행 영역에 나타나는 일반적이고 일관성을 띤 언어 능력, 즉 보편적인 제목 구조를 관찰하고, ST와 TT에서 보이는 개별적

28) 액자 안의 코끼리 그림을 바라보는 동양인과 서양인의 시선 차이를 통해 동양인은 그림 전체를 하나로 인식하여 코끼리를 포함한 초원, 산, 하늘 등을 포괄적으로 보는 반면, 서양인은 그림 속의 코끼리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문화적 차이가 시각과 지각 능력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인 제목 구조를 기술하고자 하였다.

텍스트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노력은 제목 구조에 표출될 것이고, 그 구조는 언어의 보편성과 개별성을 나타낼 것이다. 본고는 ST와 TT에 나타나는 보편적 특성을 제목 구조의 원리로, 개별적 특성을 변이로 보고 이러한 특성이 어떻게 표출되는지 찾고자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로 ST와 TT에 나타나는 제목의 특징을 다섯 가지 공통적인 구조 원리와 세 가지 개별적 특성을 갖는 구조로 제시하면서, 언어의 문법적 특성, 동서양의 사고방식에 따른 언어 사용 방식 차이, 구조에 따른 리듬감, 선호 경향 등이 변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본고의 분석 대상이 아동 도서 그림책 영한 번역서에 한정된 점, 구조적 분석만 진행한 점은 본 논문의 한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언어를 배우는 시기와 밀접한 도서의 분석이 선행되어 이를 기본으로 다른 연령대나 장르의 작품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 더욱 연구의 폭과 깊이를 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제목의 일반적인 성격에 기대어 볼 때 본고의 분석이 다른 문학서의 제목에도 적용 가능하고 유효할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출판 시기별 국내 비번역 도서나 다언어 아동 번역 도서 및 다른 장르 문학 번역서에 대한 연구도 후속 연구로 진행되길 기대하며, 여기에 제목의 기능적, 형태적, 의미적 측면과 어우러진 분석이 이뤄진다면 기술적인 관점에서 포괄적인 제목 분석학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구분관 외 (2015) 『한국어 문법 총론 I』, 파주: 집문당.
- 강지혜 (2008) 「번역기사의 제목에 관한 연구: 『뉴스위크 한국판』의 북한 관련 번역 기사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9(2): 7-43.
- 김순영 (2009)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본 소설 제목의 번역」, 『통역과 번역』 11(1): 3-26.
- 김순영, 이선영 (2015) 「영한 및 한영 소설 제목의 번역 양상 고찰」, 『통역과 번역』 17(3): 23-44.

- 나연서 (2016) 「그림책 번역시 제목의 가화성」, 『인문연구』 77: 1-54.
- 남기심, 고영근 (2002) 『표준 국어문법론 개정판』, 서울: 탑출판사.
- 남윤지 (2015) 「잃어버린 제목을 찾아서: 서사텍스트의 제목 번역에 관한 몇 가지 쟁점」, 『번역학연구』 16(3): 85-126.
- 노대규 (1997) 『한국어의 감탄문』, 서울: 국악자료원.
- 문화체육관광부 (2015) 『2015년 국민독서실태조사』, 재단법인 한국출판연구소.
- 성승은 (2014) 「영한 번역그림책의 가화성 향상 제안」, 『통역과 번역』 16(3): 1-36.
- 신지선 (2005) 「아동문학 번역에서의 가화성(speakability)」, 『번역학 연구』 6(1): 65-98.
- 신현재, 이정순 (2013) 「초등학생 학년별 동화 선호 경향 연구: 학교도서관 대출 자료를 중심으로」, 『교원교육』 29(2): 161-185.
- 오미형 (2011) 「한국영화제목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19(2): 87-110.
- _____ (2012) 「한국영화의 제목 번역 고찰」, 『번역학 연구』 13(1): 59-85.
- 이미지(2014) 「한국어 감탄 표현 교육 연구」, 『한국어 교육』 25(3): 237-258.
- 이상철 (2006) 「논항구조와 의미」, 『언어연구』 21(3): 349-368.
- 이은혜 (2014) 「한국 창작 그림책 제목에 나타난 언어 형태 및 조형적 특성의 시기별 차이 비교 연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학과 석사학위 논문.
- 임종우, 이상빈 (2016) 「외화자막의 번역규범에 대한 기술적(descriptive) 연구」, 『번역학연구』 17(1): 127-146.
- 최미경 (2016) 「번역된 소설 제목의 분석: 등가와 기능」, 『번역학연구』 17(3): 165-192.
- 최인호(한겨레 말글 연구소) (2007) 『방송 프로그램 제목 언어사용 실태 조사』, 서울: 국립국어원.
- 최재봉 (2010) 『제목은 뭐로 하지?』, 서울: 모멘토. (Bernard, Andre. 1996. *Now All We Need is a Title: Famous Book Titles and How They Got That Way*. W. W. Norton & Company.)
- Adams, Hazard (1987) 'Titles, Titling, and Entitlement To', *The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46(1): 7-21.

- Baker, Mona (2006) *Translation and Conflict: A Narrative Account*, London, New York: Routledge.
- Chomsky, Noam (1957) *Syntactic Structures*. The Hague/Paris: Mouton.
- _____ (1970) 'Remarks on nominalization', In *Reading in English transformational grammar*, R. Jacobs & P. Rosenbaum Eds., 184-221.
- Duchet, Claude (1973) 'La Fille abandonnée et La Bête humaine, éléments de titrologie romanesque', *Littérature* 12: 49-73.
- Fernald, Anneand., Morikawa, Hiromi (1993) 'Common Themes and Cultural Variations in Japanese and American Mothers' Speech to Infants', *Child Development* 64(3): 637-656.
- Genette, Gérard (1987) *Seuils*,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translated by Jane E. Lewin, 1997. *Paratexts: Thresholds of Interpretation..*)
- _____ (1991) 'Introduction to the paratext', *New Literary History* 22(2): 261-272.
- Goffman, Erving (1986) *Frame analysis: an essay on the organization of experience*. Boston: Northeastern UP.
- Gutchess, Angela. H., Welsh, Robert C., Boduroğlu, Aysecan, Park, Denise C. (2006) 'Cultural differences in neural function associated with object processing', *Cognitive, Affective, & Behavioral Neuroscience* 6.2: 102-109.
- Ji, Li-Jun., Zhang, Zhiyong., Nisbett, Richard E. (2002) *Culture, Language, and Categorization*. Kingston, Ontario: Queens University.
- _____ (2004) 'Is It Culture or Is It Language? Examination of Language Effects in Cross-Cultural Research on Categoriz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7(1): 57-65.
- Levinson, Jerrold (1985) 'Titles', *The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44(1): 29-39.
- Nikolajeva, Maria., Scott, Carole (2006). *How Picturebooks Work*. New York: Routledge.
- Radford, Andrew (2004) *Minimalist Syntax: Exploring the structure of English*.

NY: Cambridge UP.

Vygotsky, Lev Semyonovich (1978) *Mind in Society*. Cambridge, MA: Harvard UP.

Wood, David., Bruner, Jerome S., Ross, Gail (1976) 'The Role of Tutoring in Problem Solving',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17: 89-100.

인터넷 자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http://www.nlcy.go.kr/>

굿리즈 www.goodreads.com

아동 도서 그림책 목록

<http://blog.naver.com/aquary27/memo/220918912888>

어린이도서연구회 목록

<http://www.childbook.org/new3/netc.html?html=netc0.html>

인터넷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

[Abstract]

**The Structures of Titles in children's literature:
Linguistic Considerations with Diachronic Aspects**

Na, Yeon Seo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tructures of titles in children's literature between ST and TT. This research suggests that there are five common and thre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called principles and variations respectively in this paper) out of 1924 titles of ST and TT: (1) both ST and TT have more Phrasal form titles than the Sentential form, (2) NP structures among Phrasal form titles appear the most, (3) NP2 appear more than NP1 in both ST and TT, (4) full-sentence CP titles among CP forms are the most, and (5) a tendency to be translated into similar structures from ST to TT are detected. Meanwhile (i) TT-CP appears at a higher rate than ST-CP, (ii) ST-NP1 appears a higher rate than TT-NP1, and (iii) ST-NP1 forms are translated more into TT-NP2 than TT-NP1 unlike the result (5).

The data are limited to English-Korean translated children's books; structural analysis is only conducted. However, the analysis method of this paper would be applicable to the other literatures. Considering this point, researches on non-translated books, multilingual translation books, or other genres are hoped to be carried out in the subsequent studies.

▶ Key Words: title translation, title structure, children's literature, picture book

나연서

숙명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nayeonso@gmail.com

관심분야: 번역 통사, 통사기반 기계번역, 언어학과 번역

논문투고일: 2017년 1월 31일

심사완료일: 2017년 2월 26일

게재확정일: 2017년 3월 6일